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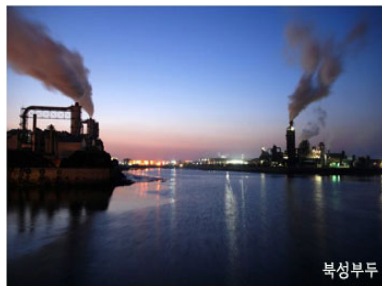
2012년 8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Column

해양 도시와 장소성의 회복



북성부두

Interview

해양도시 인천 위해 island designer가 되자



IDI 소식



전국 지방재정·세정 전문가 인천에 모여 재정 건전화 논의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재정포럼을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발표하...

Zoom 人



인정받는 주제전문사서를 꿈꾸다_정보자료실 유수희氏
연구원 내에서 가장 책이 많은 큰 방을, 홀로 묵묵히 지키고 있는 정보...

Zoom INcheon



부평대로, 일본조병창이 남긴 길과 문학
부평대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부평역에서 갈산동에 위치한 경인고...

도시동향



도시와 기념물: 파리, 싱가포르, 그리고 코펜하겐
에펠탑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616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IDI 연구



서해 도서지역의 해양 서사와 그 특징
해양 설화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신화, 전설, 민담을 포함하고 있다. ...

인천지표



인천의 해양축제
인천은 한반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곳...

해양도시와 장소성의 회복

이 세 기 · 시인

인천은 해양 도시인가?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다. 이유는 많겠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접근성이다. 인천에서 항구나 부두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해안을 끼고 형성된 도시치고는 바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연안부두나 북성, 만석, 화수부두는 도시 속 오지로 전락했다. 외지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전철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안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조차 없는 빈곤한 도시다.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야적장과 공장지대가 여전히 해안선을 선점하고 있다. 그 결과 인천은 해양도시라는 '장소성'을 잃었다.

장소성을 잃은 것은 비단 해안뿐만 아니다. 항구도시라는 이점으로 형성된 차이나타운이나 양키시장 같은 경제·문화적으로도 유용한 자원도 쇠락 직전이다. 인천 앞바다에는 170여개의 섬이 있지만 공동화(空洞化)로 인하여 황폐화되고 있다. 공단은 옛 영화를 잃었다. 윤택한 생산과 소비를 유인하지 못한다. 바다와 물, 차이나타운, 양키시장, 공단과 섬을 아우르는 해양 도시다운 상상력이 없다. 장소성을 상실한 인천은 창조가 부재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장소성의 상실은 우리에게 얇은 삶을 강요한다. 수직적인 욕망만 키우고 수평적인 지층의 다양한 리듬을 포기하게 한다. 그리하여 지층의 깊은 삶은 보기 좋게 매립되고 지워지고 만다. 아파트 문화같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얇은 삶만이 존재한다. 다양한 지층을 포기한 획일화된 삶은 욕망만을 키우는 결핍된 삶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인천이 '인천다운' '인천답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매립과 개발로 도시의 외경만을 키우는 것인가. 물론 구도심에만 답이 있다는 고답의 답도 대안은 아니다. 문제는 조화일 터인데, 나는 그 중에 하나가 해양 도시라는 장소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본다. 인천 사람들에게 항구와 해안을 돌려주고, 섬과 물을 이어주고, 구도심과 신도심을 이어주는 두꺼운 삶이 공존하는 해양도시 문화를 꿈꾸는 것이 어디 나쁜만인가.

소래포구나 북성부두가 인간다운 것은 장소성에 있다. 장소의 서민성이야말로 인천의 깊은 지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살이의 때가 물씬 묻어나고 리얼한 삶이 응축된 장소야말로 속 깊다. 무의식의 지층처럼 깊다. 차이나타운, 양키시장, 일터가 있는 공단과 준비한 문화공간이 있는 해안을 가진 장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아마도 인천이라는 도시에 리듬이 있다면 바로 이런 데에 있다. 서로 다른 이질(異質)이 융합되는 해양 도시 특유의 문화는 도시의 밑바닥 지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인천은 해양 도시가 갖는 리듬을 상실했다.

물론 분단체제로 인한 황해의 죽음도 해양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된 이유다. 덕적군도와 서해5도, 강화도 역시 바다의 분단선인 북방한계선으로 인하여 죽음의 바다가 된지 오래다. 이로 인하여 이들 접경지역의 섬들은 인문적 가치는 물론이고 문화 역시 파멸화되고 있다. 이도(離島)로 섬들은 텅 비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 이젠 더 이상 문화를 일궈 온 섬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오랜 미래인 장소가 지워지고 사라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장소의 상실은 영혼이 뿌리 뽑히는 것과 같다. 골프장 건설로 정주한 삶이 파괴될 운명에 처한 굴업도 문제는 자본을 앞세워 만인이 누려야 할 섬을 강탈하는 것과 같다.

나의 유별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인간은 '장소애(場所愛)'를 먹고 산다. 장소의 기억은 현재와 미래를 치유케 한다. 나는 그것을 잃어버린 '장소의 귀환'이라고 부르고 싶다. 바다를 빼고 인천을 상상할 수 있는가? 섬들이 없는 인천을 과연 인천이라고 할 수 있나? 해풍을 맞으며 삶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문화공간이 있는 항구로 가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삶이 풍요로울 것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인천이 해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장소성의 회복'이다. 우리에게 해양은 무엇이었는가. 인천은 어떤 도시로 되살아나야 하는가.



해양도시 인천을 위해 island designer가 되자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8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해양도시 인천을 위해 island designer가 되자

아트리에 73호에서는 인하대 해양학과 최중기 교수를 만나 인천의 해양정책 방향과 서해평화 안착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여수엑스포의 평가를 비롯해 해양연구 측면에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 중 기 교수
(인하대학교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 소장)

Q. 우선 해양학과 근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인하대학교 해양학과는 79년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저는 그 이듬해인 80년에 부임했습니다. 그 당시 박태원 부총장이 여러 해양학자들의 의견과 프랑스와 미국의 해양 연구를 접하고 인하대도 바닷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감안해, 해양학과를 인하대의 특징학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당시 자매결연대학인 남가주대학의 해양 연구를 벤치마킹하면서 해양학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오면서 해양생물 뿐만 아니라, 해양과학은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지질, 물리, 화학 등을 아울러야 한다고 해서 그 분야 교수님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동안에 인하대학교 내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서해연안환경센터 등을 만들었으며 인천지역의 해양문제 뿐만 아니라 황해 전체 문제를 다루고자 국제황해학회를 설립해서 중국과학원과 지속적인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Q. 학과 단위로 해양정책 관련 일을 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인천에는 해양대학이 세워져도 될 여러 조건이 충분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해양생물공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해양생물을 응용해서 산업화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해양생물공학과와 유사한 학과를 만들어보고자 했으나 대학내 이해가 부족해서 동의를 얻지 못했고, 최근에는 홍승용 총장이 해양과학대학교를 세우려고 노력했으나 대학내 경영 문제와 소위 말해 당장 써먹을 분야에 인원이 배치되면서 정작 지역특성화에 필요한 분야는 소홀한 나머지 해양관련 교수들과 총장도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인천대학교에서 해양과학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종합대학에서 해양분야는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부경대, 해양대, 그리고 군산대에는 해양관련학과가 있습니다. 인천에 해양 관련 단과 대학이 없다는 것은 인천특성을 살리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부산은 부산시의 강력한 요구로 해양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산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이전하면 인천은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중국은 해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 청도시 자체를 해안도시로 서해해 조하대하이 주구 해안대하이로 이트르 저포지 지워해 해즈고 이스니다.

인천시에는 도서와 연안이 있는데도 해양국이란 단위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 때는 해양수산부가 있었는데, 인천시는 해양수산국이 아닌 항만국과 수산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천의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바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다를 메꿔서 땅 확보하는 일에 급급했지, 바다를 활용하고,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한 점이 있습니다. 해양도시, 바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청도와 인천을 많이 비교하는데, 청도시는 인천과 비슷한 여건이지만 청도가 관문 역할을 하면서 해양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청도시를 통해 지역의 특성화와 해양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미관 자체를 해양중심으로 만들어 여름이면 내륙의 시안, 우한 등 1,000km 떨어진 중국 전역에서도 청도를 찾아오는 관광지로 발전했습니다. 인천도 해양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갈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내륙 중심 보다 바다 중심의 도시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Q. 해양연구자로서 서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휴전 이후에 남북 협의가 돼서 한강 하구를 서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개성도 한강 하구를 이용해서 물류를 유통하면서 발전했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 이용 등을 중요 의제로 삼아 정치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 양측간에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서해5도 부분도 접경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면, 남북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국제평화공원을 만들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동수역을 통해 자원을 조성하고 또 이용하면 경제적 이익을 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방의 개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관리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져서 안보개념이 들어간 공동의 이용 수역을 만든다고 한다면 발전된 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여수엑스포가 끝났습니다. 첫 해양축제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수엑스포는 바다를 이용의 대상만이 아닌 생명 넘치고 숨쉬는 바다를 만들자는 것이 모토였고 국내외에 인식시키자는 의도를 갖고 기획되었습니다. 여수엑스포의 하이라이트였던 빅오쇼(Big-O show)를 비롯해 주제에 맞게 구상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주제 살리기에 노력했으나 소프트웨어적인 뒷받침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수엑스포를 찾는 사람들이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들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양관련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했으면 스스로 공부도 되고, 관람객들의 이해도 돕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수엑스포가 바다환경에 대한 인식전환과 바다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준비한 내용에 비해 효과가 좀 덜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인천이 환경해권 중심도시로서 엑스포를 통해 해양도시로 성장할 기회가 오리라 기대도 해봅니다.

Q. 마지막으로, 해양연구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의 도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작은 무인도까지 포함해 170개 섬을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이 해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천의 도서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용어로 island designer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 말을 쓰고 있는데, 과거부터 현대화된 것까지 아우르는 각 섬들의 발전 방향들이 나와서 인천의 섬들이 해양도시로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역할을 하는 밑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sland designer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과학·생태·교통 등의 종합적인 구상이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방안들도 나올 것이고, 섬 관련 단체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연구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도서 관련 데이터베이스화도 부족한 상황이라 인천발전연구원 안에 도서관련 부서나 지원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황해와 동중국해 바다 환경의 변화 추이를 예측해보고 장기적인 변화를 지켜보는 일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 대담 : 김 창 수(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



■ 기록·사진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아프리에 73호에서는 인하대 해양학과 최중기 교수를 만나 인천의 해양정책 방향과 서해평화 안착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여수엑스포의 평가를 비롯해 해양연구 측면에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8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전국 지방재정·세정 전문가 인천에 모여 재정건전화 논의

■ 전국 지방재정·세정 전문가 인천에 모여 지방재정 건전화 논의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재정포럼을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인천재정포럼 창립식 및 제1차 포럼을 지난 24일, 인천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인천시 재정 현황의 문제점과 지방재정건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는 "지방세확충을 통한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지자체가 담당하는 국가사무가 많은데 비해 그에 따른 재정확보가 안 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 규모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인권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인천광역시 재정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지난해 인천시에서 직원수당이 하루 지연돼 지급된 적이 있고,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곳이 135개 단체에 이른다. 안정적인 세수 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 우리 연구원 김민배 원장, 조인권 인천시 예산담당관, 유태현 교수 등 재정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지방재정관련 제도 개선(안)을 전국 학회에서 발표하고, 중앙정부 등에 개선을 요구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서해평화정책포럼, 백령도서 창립기념 학술행사 개최



서해평화실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제언 활동을 위하여 지난 7월 14일 공식 출범한 서해평화정책포럼(공동대표: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최원식 인하대학교 교수)이 지난 8월 22일, 백령면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가졌다.

"평화의 섬, 서해5도의 인문역사·생태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행사에는 김영봉 원장(한반도발전연구원), 백영서 교수(연세대학교),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이병 위원(한겨레평화문화재단), 홍연기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등

포럼위원 및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해5도의 생태환경, 서해 도서지역의 해양서사, 서해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포럼의 첫 공식행사인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남북분단의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는 백령도에서 개최함으로써, 포럼의 사업목적인 서해평화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백령도와 대청도의 지역현안 및 역사자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주민들과의 현안간담회 및 도서답사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해평화정책포럼은 서해5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과 정책의제 마련의 기반을 다지고, 인천이 중심이 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모델을 제시하여 새로운 정부가 주요 통일정책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 인발연-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자매결연 체결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7일 오후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임희진)의 아동 및 청소년 20여명을 연구원으로 초청해 자매결연을 맺고, 연구원 견학 및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에 본격 나섰다.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이하 푸른솔)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내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자녀, 주민센터 및 학교 등에서 추천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현재 29명의 아동이 있으며, 이중에는 6명의 장애아동이 포함돼 있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동호회별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10월에는 사진동호회·레포츠동호회·걷기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아라뱃길 탐방, 12월에는 영화동호회·익스트림동호회·인문답사동호회가 중심이 된 영화관람 등의 시간을 마련해 푸른솔 친구들과 훈훈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연구원 내 '사회공헌활동 동호회(회장 이용갑)'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고, 앞으로도 여타 동호회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재정포럼을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인천재정포럼 창립식 및 제1차 포럼을 지난 24일, 인천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인천시 재정 현황의 문제점과 지방재정건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정받는 주제전문사서를 꿈꾸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8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8월에 만난 idi people

인정받는 주제전문사서를 꿈꾸다

유/수/희 사서

“아트리에에는 올해, Zoom人 코너에 'IDI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솔밥을 먹고 있는 연구원, 행정사무직, 기능직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전직 연구원까지 여러 관계와 인연을 만나려 갑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가야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구원 내에서 가장 책임 많은 큰 방을, 홀로 묵묵히 지키고 있는 정보자료실 사서 유수희씨.

인천 토박이로 자라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대학 전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어린 시절에 '도서관학과'를 알게 되었다. 마침 당시에는 공공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가는 것에 쏠쏠한 재미를 붙였을 때여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고3이 되어 입학원서를 쓸 시기가 됐을 때, 자연스레 도서관학과를 떠올리게 되었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도서관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확대 개편된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전망이 밝아 보여 전공을 결정하게 되었다.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관련분야에 계속 근무하다

인천으로 옮기고 싶다 생각할 무렵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99년 7월 5일에 입사를 했으니, 벌써 12년이 넘었다. 유수희씨는 사서직은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누구라도 할 수는 있는 일이되 적성에 맞지 않으면 오래 하기 힘든 직종이라고 말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유수희씨 본인의 성격이나 적성에는 어느 정도 잘 맞는 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남모를 고충도 따른다. 정보자료실에 혼자 있다 보니 자료실 관리 업무는 일 자체가 반복적이고,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적은 편이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는 여유롭고 자유롭게 근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자리비움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 하고, 연구원 안팎의 전화문의가 잦은 편이라 이와 관련한 업무 소요 시간도 무시 못한다. 또, 연구원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유관 행정업무는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결코 한가한(?) 자리는 아니다.

정보자료실에는 2012년 7월 현재 1만 9천여 권의 등록 단행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외에 정기간행물도 일부 소장하고 있다. 외부인의 연구원 자료 이용 부분은 공간과 자료 관리상의 이유로 적극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동일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열람 가능한 기관 안내 등 최선을 다해 응대하고 있다.

나중에 자료실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자료를 소장하는 서고 및 내부 이용자를 위한 별치된 자료의 공간, 외부 이용자를 위한 열람 시설 등이 구축된다면, 외부 이용자를 위한 열람 서비스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원 상황이 좋아져서 인원이 보충되어 최소 2인 이상 전담 근무가 가능하면 연구원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가중해하던 연구원들이 이용시설을 위해 더 많은 정보자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해본다. 또한, 자료를 찾으러 오는 분들을 위해 거창하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북카페 같은 안락한 공간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도 꿈꿔본다. 정보자료실에 대한 유수희씨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원의 상습적인(?) 내부 연체자들에게도 당부를 부탁했다.

"연구원 자료실의 이용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30일입니다. 따져보면, 한달 보름 정도의 기간이지만,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깜박하시는 경우도 종종 생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년에 2-3회 이상 안내멘트를 단체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그때만이라도 기억하셔서 원만한 도서 정리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수희씨는 특별히 전공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지 않았다. 그런걸 보면 확실히 전공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다만 얼마전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다문화가족이 많아지는 사회적 추세에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정보자료실에 있으면, 보통의 사람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을 거라 짐작할텐데, 과연 진실은 어떠한지

밝혀달라는 질문에, 유수희씨는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 늘 받는 대표적인 오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의든 타의든 책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심도 깊게 읽지는 않아도 책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취미가 '독서'인 사서는 많지 않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구입한 책도 많기는 한데,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은 책들도 있고, 읽고 주변에 돌려 읽기도 많이 하는 편이라 몇 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할 때마다 이삿짐센터 분들이 직업이 뭐냐고 묻는 걸 보면, 많긴 한 모양이다.

자신의 좌우명인 '최고보다는 최선'을 실천하면서 조용히 말은바 소임을 다 해가는 유수희씨가 20년 전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린 그림은 연구원 자료실에서 전문사서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 막상 기회가 생겨서 일을 하다 보니 부족한 점도 많고,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매일 매일 느끼며 살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20년 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정받는 주제전문사서의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늘 논리정연하고, 호트러짐 없고, 독부러지는 인상을 주지만, 호기심 많고, 인간적인 매력도 넘치는 유수희씨가 그녀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해본다.

■ interviewer :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글 :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 사진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내에서 가장 책이 많은 큰 방을, 홀로 묵묵히 지키고 있는 정보자료실 사서 유수희씨. 인천 토박이로 자라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대학 전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어린 시절에 '도서관학과'를 알게 되었다.



부평대로, 일본조병창이 남긴 길과 문화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8월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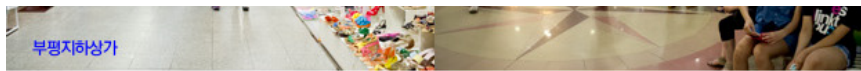
▶ 웹진 구독신청하기



글 / 김창수(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사진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부평대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부평역에서 갈산동에 위치한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까지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이며, 경인고속도로를 넘어서면 계양대로와 바로 연결된다. 본래 부평대로는 부평역과 계양구의 중심지를 잇는 길이었으나 부평과 계양이 분구되기 전에는 '부평로'로 불린 하나의 길이었다. 부평대로의 출발점인 부평역은 1930년대 일본육군조병창이 이 일대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조그만 시골역에 불과했다. 조병창이 세워지면서 부평역과 공장지대, 그리고 옛 도호부가 있던 계산동 일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부평로가 개설되었다. 지금의 부평역 일대는 인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천 최대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경인전철 부평역은 인구가 밀집한 부평 계양 일대의 중심역인데다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이 되면서 더 번잡한 역이 되었다. 부평역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부평역 지하상가는 약 1000여개의 점포로 이뤄진 국내최대 규모의 지하상가로 하루 평균 13만 명이 찾는 패션 거리이다.





부평구는 인구가 48만 명에 달하는 인천 최대의 자치구지만 부평구와 구민들이 느끼는 정체성은 분명치 않다. 부평의 문화적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주민들이 역사적 단절감을 느끼는 원인 중의 하나는 개항 이후에 이루어진 빈번한 행정구역의 변화이다. 삼국시대 이래 오랜 기간 독자적인 문화권역을 형성해온 부평(계양) 문화권은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의 변경하면서 부천군에 편입되었고, 1940년에는 부평의 일부가 다시 인천부에 편입되어 부평사람들의 귀속의식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해방 이후 대부분의 부평지역(계양, 서구, 부평)은 다시 인천시로 통합되면서 북구로 명명되었다. 1988년에는 북구의 계양산-철마산 서쪽 지역이 서구로 분할되었으며, 1995년에는 경인고속도로 북쪽에서 계양산에 이르는 지역이 다시 계양구로 분구되었다. 경인고속도로 남쪽 지역은 부평구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부평구는 역사적 지명은 계승하고 있지만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계양구와 서구에 귀속된 관계로 주민들이 느끼는 역사적 단절감이 심각하며 문화적으로는 뿌리 뽑힌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조병창이 남긴 문학 - 해방공장

해방직후의 부평역, 그러니까 육군 조병창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으로 이규원의 **해방공장**(1948)이 있다. 이규원¹⁾의 **해방공장**은 해방기의 역동적인 공장과 노동자들의 의식변화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해방 직후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부평의 주물공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군수공장 내 노동자 집단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 부평지역은 1941년 만주참공을 위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공단으로 재편되었다. 육군 인천조병창을 중심으로 부평일대에는 주물, 금형, 전기, 각종 부품 관련 하청업체들이 진출하여 군수산업도시를 이루고 있었다. 각 군수공장은 헌병대와 경찰의 엄중한 감시 속에서 가동되었다.²⁾ 노동자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체포하거나 추방하였다. 이러한 엄중한 감시 속에서도 황장연 등은 부평 조병창 내에 30여명의 노동자를 설득하여 고려재건당을 조직하는가 하면, 오순환, 김군희 등은 조병창의 무기나 무기제조법을 빼낼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다가 1942년 발각되기도 했다. 탄압과 수탈의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 1940년대에, 가장 엄중한 감시의 대상이었던 부평 조병창 내부에서 민족해방운동과 지하 조직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인천구백사십오년 팔월 십오일, 정오. 서울과 인천을 이어놓은 식민도로 (補民道路, 말하기를 산업도로)를 앞에 끼고 부평 평야에 풍덩 주저앉은 이 군수공장은 미구에 들러올 역사적 통곡도 모르고 압박과 착취의 고역을 계속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패망이 확인되자 노동자 집단과 일본인 관리자들은 공장의 관리를 둘러싼 참여하게 대립한다. 노동자들은 일본인 사업체에 대한 접수 운동과 함께 이들 업체에서 자주관리 운동을 전개했다. 자주관리 운동은 일본인들이 생산 설비를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원료나 자재를 투매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업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선 경제의 토대가 되는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 자주관리 운동은 제조업 뿐 아니라 교통운수업, 광업, 사업,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³⁾ 당시 전평에서도 노동계급의 공장관리주장은 현실이 요구하는 가장 공명정대한 주장이라고 하며 * 정책으로 수용하고 지지하였다.

해방공장의 주인공들은 일본인들이 폭압적 방식으로 관리 감독하던 군수공장을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자주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나간다. **해방공장**의 주인공 용해공 김용갑을 비롯한 이달관, 조억만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인 관리자로부터 해산금을 몰수하여 임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몰수한 일본사택 중 방이 많고 큰 집은 노동자 합숙소로 정하고, 가족 수와 재직 연수, 종래 지위를 종합하여 배분하는 등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가혹한 억압과 착취의 주체였던 일제가 갑자기 물러나자 노동자들은 일시적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일본인에 대한 증오로 극단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공장의 지도부는 좌·우 편향들을 극복하고 관리부서나 간접지원부서의 인원을 생산부서로 배치하는 등 군수공장을 마침내 평화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다.

팔월공장(八月工場). 새로 이름 지은 공장 명칭도 장하게 주먹 같은 먹글씨로 된 간판이 정문에 덩그러니 달렸다. 팔월의 태양, 팔월의 정열, 팔월의 해방을 상징하는 위대한 이름과 더불어 인천구백사십오년 사월 일일, 송장과 같이 죽어있던 수많은 기계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벌써 무척덜어리로 된 기계라기보단 노동자들의 열과 땀이 통하여 움직이는 생물이리라.

부평의 조병창은 대동아 전쟁의 중요한 병참기지였다. 이 전쟁 지원 시설이 노동자들에 의해 관리되는 **팔월공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가동을 멈추었던 기계들은 달포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노동자들은 문득 그 기계들을 정겨운 동반자처럼 느낀다. 얼마간 들뜬 기색이 역력하지만, 이 소설에서 공장과 기계, 노동자들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고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일제의 마수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손으로 재가동시킨 공장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 공장을 둘러싼 갈등이 조만간 생겨날 것을 작품 속에서도 암시하고 있다. 미군정이 자주관리를 부인한 현실의 정치지형은 파국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평대로의 문화

일본 조병창은 해방 후 미군의 군수 지원사령부(Army Supply Command)의 약칭인 애스컴(ASCOM)으로 바뀌고 미군은 부평지역을 아예 애스컴 시티라고 불렀다. 애스컴 주변은 전형적인 기지촌으로 바뀌어 미군기지에서 흘러 나오는 군수 물자를 매매하고, 미군을 상대로 하는 각종 업소들이 자리 잡았다. 애스컴은 한국 최초의 기지촌이었던 셈이다. 부평역 앞쪽의 기지촌은 부평 우체국에서 신촌에 이르는 가로에 형성되었다.



부평대로는 한국 근대화를 상징하는 부평공단의 동맥이었다. 1965년 부평지역이 수출공단으로 지정되고 이 일대에 입주한 천여 개의 공장은 부평대로를 기반으로 생산활동을 했다. 부평대로에 위치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대우자동차**였다. 지금은 **지엘대우**를 거쳐 **한국지엘**으로 바뀌었지만, 부평사람들에겐 여전히 **대우**로 남아있다. 부평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1955년에 국내 최초의 승용차인 **시발(SHIVAL)**이 부평공장에서 생산된 이래 1962년에 대우자동차의 전신인 신진공업사가 창립되었으며, 뒤이어 쌍용자동차의 전신인 **하동환자동차제작소** 등 30여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1965년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에서 1600cc급 **코로나**와 **크라운**이 생산된 것을 시작으로 1972년에는 GMK에서 **시보레**와 **레코드**가 제작·판매한 **월드카** 르망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한 기점이었다.



Photo Essay



한 여름, 석종수가 찍고, 조승현이 쓰다.

몇 달 전 출근길 자유로
이제 살만큼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뱅겨져 들어왔다.
지난시절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내 실력이 떨리고
노력이 부족했으려니 했다.
이만큼 살아보니
그 땀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이 있었어도
안 될 일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그런 일들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들도
보게 된다.
력써리하게 시간을 쓰고 싶다.
욕망의 정수(精髓)
사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싶다.





글 장순지(사무처)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부평 청천동 골목을 굽이굽이 휘돌아 가면, 이런 곳에 무슨 식당이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거짓말처럼 **힐록**이라는 폐교 카페가 눈에 들어온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을 곳이다. 그런 산기슭에 자리한 힐록은 스토리가 있는 곳이다.

지금의 힐록은 50년대 전쟁 통에 동네 고아들과 혼혈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앵벌이를 시키는 금성기술전문학교였고, 이후에 힐록 사장이 20년간 거주하다가 다시 개조해 카페를 만들었다.

힐록은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주변에 나무가 울창해 야외에 놀러 나온 듯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딱히 이야깃거리가 없어도 서너 시간쯤은 충분히 머물다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단골들이 많은 눈치다.



분위기 있는 산장이나 별장 느낌이라 메뉴가 다소 조화롭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다양한 요리들 선보인다. 스파게티와 피자, 스테이크 외에 닭볶음탕도 있고, 미리 예약하면 6인 기준으로 통삼겹과 목살, 버섯, 가지, 양파, 파인애플 구이가 푸짐하게 준비되는 바비큐 요리도 주문이 가능하다. 케사디아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 나폴리타나 매콤한 소스 스파게티와 크림스파게티, 안심스테이크, 뉴욕컷 스테이크, 돈까스를 골고루 주문했다.



전체적인 음식 별점은 별 세 개 정도. 나쁘진 않지만 특별하지도 않다. 양도 많은 편은 아니다. **힐록**은 눈으로 보며 분위기를 느끼는 것에 더 높은 점수를 줘야 할 카페다. 따라서 맛을 찾는 사람들 보다는 분위기를 좇는 연인들이나 주부님들이 편하게 찾기 좋을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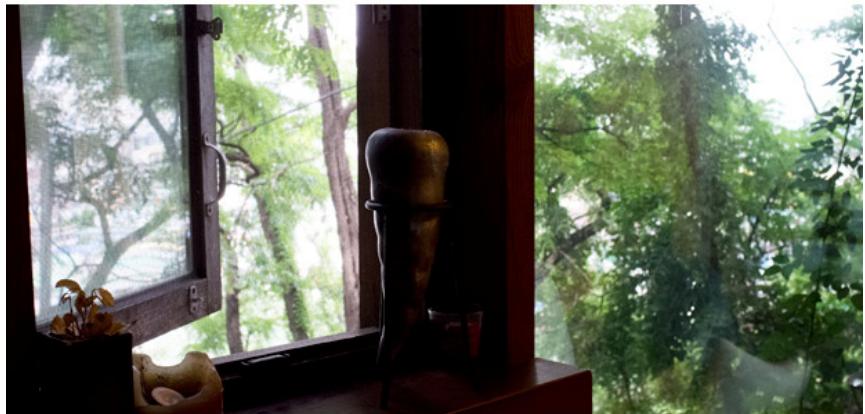
모든 음식이 이탈리아 푸드라기보다 오리엔탈 푸드에 초점을 둔 듯 우리 입맛에 맞춘 느낌이 든다. 스테이크 소스도 그렇고, 스파게티 소스도 그렇다. 그런데 오히려 이탈리아 레스토랑 음식에 길들여진 탓인지 소스 맛이 따로 노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곳곳에 엔틱하거나 신기한 소품들이 있고, 작은 소파 옆에는 무식난로가 있어서 지금도 차창 밖

풍경이 온통 초록이라 싱그럽지만, 눈 내리는 날 방문하면 산장에 온 듯한 훈훈한 온기와 더불어 하얀 겨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사계절이 다 그림 같지만, 특히 5월에는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힐룩**은 또 소규모 동호회 모임이나 산악회 회원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작품 전시나 베품시장, 독서모임, 그리고 와인클래스 같은 행사도 계획 중에 있다.

힐룩은 청천4거리에서 청천약국을 끼고 들어가 덕수슈퍼와 관음정사 쪽으로 올라가면 만나지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맛 집보다는 멋 집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꽤나 높은 별점을 줄 수 있는 **힐룩**. 산자락에 자리해 달도 밝고, 별도 많은 힐룩에서 앞으로 다가올 가을 정취와 겨울 운치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다.

*주소 : 인천 부평구 청천동 48-30 *전화번호 : 032-502-3878



부평대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부평역에서 갈산동에 위치한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까지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이며, 경인고속도로를 넘어서면 계양대로와 바로 연결된다. 본래 부평대로는 부평역과 계양구의 중심지를 잇는 길이었으니 부평과 계양이 분구되기 전에는 '부평로'로 불린 하나의 길이었다.

도시와 기념물: 파리, 싱가포르, 그리고 코펜하겐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8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김 창 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

에펠탑의 경제적 가치

에펠탑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616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탈리아 몬자-브리안자 상공회의소(MBCC)가 최근 유럽의 주요 기념물·유적들을 이미지, 브랜드 가치, 경관가치, 고용 창출 효과, 관광객 수 등 10가지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의 경제 가치가 무려 3천 430억 파운드(한화 616조원)에 이른다니 놀랍고 부럽다. 다른 기념물·유적의 경제적 가치평가도 제시되었는데, 로마의 콜로세움은 약 129조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파밀리아 성당은 약 127조원, 이탈리아 밀라노의 도오모 성당은 약 1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89년 세워진 에펠탑은 매년 관광객 800만명이 찾고 있는 유럽 최고의 관광명소이다. 616조원은 프랑스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하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더구나 에펠탑은 유럽 도시의 기념물 유적 가운데 최상위 상위 7위 안에 들어간 다른 기념물이나 명소의 경제가치를 합한 것보다도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가 결과는 도시의 랜드마크나 창의적 기념물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에펠탑이나 콜로세움과 같은 역사적 명소는 아니지만 방문객을 불러들이는 매력적 상징물을 가진 도시는 의외로 많다. 인어공주 이야기를 조형물로 만들어 유명해진 코펜하겐이나, 물고기의 몸에 사자의 얼굴을 한 머라이언(Merlion)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그 사례이다.



싱가포르 머라이언 공원



▲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세워진 머라이언 타워, 전망대로 사용될 수 있는 37미터 높이의 규모로 제작되었다- 차르 심컨(2006)

◀ 싱가포르 머라이언 공원의 머라이언 상(像)

싱가포르의 머라이언상 이야기도 재미있다. 머라이언상의 머리는 사자이고 몸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석상(石像)으로 싱가포르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 상징물은 옛날 수마트라 왕자가 새로운 영토를 찾아 이곳에 당도했을 때 흰 갈기를 가진 사자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지역을 '사자의 도읍'이라는 뜻의 '싱가푸라'라고 이름 지었다는 지명유래에 착안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낮에는 분수를 내뿜고, 밤이면 조명을 받으며 바다를 향해 서 있는 머라이언 상의 늠름한 모습은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싱가포르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게 하는 명물이 되었다. 머라이언 공원의 연간 방문객은 800만명에 달하는데 그 핵심적 매력물은 싱가포르의 신비한 전설을 들려주는 머라이언상이라 한다. 해양철화와 도시 공간을 결합시켜 매력적인 장소를 창조해낸 대표적 사례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머라이언 공원의외에 또 다른 머라이언상을 세웠는데, 센토사 섬에 위치한 높이 37미터의 거대한 머라이언 타워가 그것이다. 밤이면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이 머라이언상은 섬 전체를 조망하는 전망탑으로도 쓰인다.

코펜하겐 항구의 인어공주상



▲ 코펜하겐 항구의 인어공주상과 왕자상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에는 항구를 상징하는 작은 인어공주 동상이 있다. 가스텔레트 요새가 있는 해안에 위치한 이 인어공주상은 조각가 에드바르트 에릭슨이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를 참고로 하여 자신의 아내를 모델로 하여 만든 조각이다. 80cm에 불과한 작은 동상이지만 코펜하겐을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런데 코펜하겐 항구의 '외로운' 인어공주가 최근 꿈에 그리던 왕자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펜하겐 북부의 항구에 인어공주의 짝이

이야기가 담긴 도시를 위하여

철타 하나로 616조원의 가치를 창조한 파리, 인어공주 이야기를 도시에 재현하고 재현된 조각 작품을 소재로 다시 새로운 로맨스를 창조한 코펜하겐, 단순한 지명유래담에 상상력을 보태 항구 도시의 매력과 가치를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에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기능주의의 과잉으로 을씨년스럽기만하다. 시멘트 숲으로 남아 있는 도시에 이야기와 감동을 이입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소'로 바꾸는 일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

에펠탑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616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탈리아 몬자-브리안자 상공회의소(MBCC)가 최근 유럽의 주요 기념물·유적들을 이미지, 브랜드 가치, 경관가치, 고용 창출 효과, 관광객 수 등 10가지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 것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8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서해 도서지역의 해양서사와 그 특징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 김항수

1. 인천의 해양설화

해양 설화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신화, 전설, 민담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설화 자원 가운데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설이다. 전설은 신화나 민담과는 다르게 특정 지역 단위로 전승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전설은 그 지역의 자연물이나 자연현상, 혹은 지역사회의 인물이나 경험한 사건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이야기의 근거로 그 지역에 구체적인 장소나 증거물이 있다.

신화는 국가 단위로 전승되는 이야기이기에, 그리고 민담은 전승 범위에 제한이 없기에 신화나 민담으로써는 특정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포착하기 어렵다. 다만 마을 단위로 존재하는 그 마을의 유래담, 그 마을의 시조에 관한 이야기, 그 마을의 서낭당 유래담은 신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전승 단위는 마을이기에 문화자원으로서 주목 대상이 된다.

인천의 설화는 시지 및 연구단체의 보고서, 전문가에 의해서 재구성된 설화모음집 등에 수록되어 있다. 인천 전역의 설화전승 현황을 개괄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자료로 대표적인 것은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강화구비문학대관』, 『우리 고장의 지명과 유래』 등이다. 인천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설화 가운데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골라내고, 여기서 다시 일정한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는 전설을 추려내면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인천 지역 해양설화 목록

구분	설화명	증거물	출전
중구	용류기암의 유래	용류기암 (요파기암)	[자랑]
	선녀암의 사연	선녀암	[자랑]
	무의동 유래	무의도	[유래]
남구	옛 일을 입증하는 배 바위	배바위	[자랑]
	비룡마을 유래	비룡마을	[유래]
	비룡고개 유래	비룡산, 비룡고개	[유래]
연수구	가생바위	가생바위	[자랑]
계양구	돌곶이명당	돌곶이	[계양사]
	인부지간에 아박전소리		[계양사]
남동구	호구포 나무의 호구암	호구암	[자랑]
	창자굴 유래		[자랑]
서구	반월촌 유래	반월촌	[유래]
	도촌과 노염밭	도촌, 노염밭	[유래]
	하루 두 번 여닫히는 갑중사 대문	갑중사	[자랑]
	소염도 각시당	소염도	[대계]
	원적산 중턱에 뜬 배	원적산	[계양사]
	세어도와 범섬에서의 외한한 사냥	세어도, 범섬	[계양사]
	바다 수렁에 빠진 사기배	녹청자도요지	[계양사]
강화군	마니산의 형성 유래	마니산	[대계]
	마귀할멈이 놓은 지석묘	지석묘	[대계]
	선두포둑 유래 ①	선두포둑	[대계]
	선두포둑 유래 ②	선두포둑, 속담	[대계]
	각시섬의 유래	각시섬	[대계]
	곰배이야기		[대계]
	바람나는 비석	홍비석	[대계]
	전두리 유래	전두리 (저은들 마을)	[대계]
	보문사 십팔나한	보문사 십팔나한	[대계]
	보문사의 은혜		[대계]
	바람나는 간드렁 바위	간드렁 바위	[유래]
	치마바위	치마바위	[대계]
	마귀할멈 손자국 바위	손자국 바위	[대계]
	문무정의 생물이 마르게 된 까닭	화개산의 문무정	[대계]
	보름도와 굴정리의 유래	보름도(볼음도리), 굴정(말도리)	[대계]
	천지포 돛다리	천지포 돛다리	[대계]

	장봉도 거북돌 유래	거북산, 거북돌	[대계] [유래]
	할어동천	치마마위 (장사암)	[대계] [대관]
	꽃창촌 유래	고창촌	[유래]
	선돌 추위 유래	선돌 추위	[대계] [대관] [사사]
	고향으로 간 선돌	선돌목	[대계] [사사]
	선돌목과 벼슬 없는 양반	선돌목	[자랑] [대관]
웅진군	임경업 장군 전설(어살기원담) ①	운북4리 계당	[대계]
	임경업 장군 전설 ②	임경업 장군 계당	[대계] [사사] [자랑]
	은동굴 유래		[대계]
	백령가생		[자랑]
	갓 쓴 비석	삿갓비석	[대계]
	용궁사 돌부처	용궁사 돌부처	[대계]
	송장바위	송장바위	[대계]
	망구알매 설화	각홀도, 선단여	[굴입도]
	한뿌리 전설		[영충]
	백령도 유래	곡도 (백령도)	[유래]
	백령도와 거타지	곡도 (백령도)	[사사] [자랑]
	진염도 유래	진염도	[유래]
	모도(茅島) 또는 떠섬 유래	모도 (떠섬)	[유래]
	장봉도 유래	장봉도	[유래]
	와도(臥島) 또는 아열도 유래	와도	[유래]
	사도(蛇島) 또는 사열도 유래	사도 (뱀섬)	[유래]
	오도(梧島) 또는 신오도 유래	오도	[유래]
	동만도와 서만도 유래	동만도, 서만도	[유래]
	느진구지 유래	느진구지 (늦은구지)	[유래]
	장굴 유래	장굴	[유래]
	연평도 유래	연평도	[유래]
	모이도 유래	모이도	[유래]
	고래진굴 유래	고래진굴 (고래준굴)	[유래]
	파산굴 유래	파산굴	[유래]
	소바위 유래	소바위	[유래]
	살형제바위 유래	살형제바위	[유래]
	진상바위 유래	진상바위	[유래]
	불알조리개날바위 유래	불알조리개날바위	[유래]
	연봉도 유래	연봉도, 연화암	[유래]
	두무진 유래	두무진	[유래]
	임당수 전설	두무진 물목	[자랑]
	사자바위 유래	사자바위	[유래]
	술바위 또는 장암(銀巖) 유래	술바위 (장암)	[유래]
	창바위 유래	창바위	[유래]
	대청도 유래	대청도	[유래]
	부처당산 전설	부처당산	[대계]
	임경업 장군이 제사지낸 국수봉	국수봉	[자랑]
	벼꼭산 유래	벼꼭산	[유래]
	용당 유래	용당	[유래]
	호맥이 전설	호맥이 물목	[유래]
	장사바위 유래	장사바위	[유래]
	선대암(선단여) 유래	선대암 (선단여)	[유래]
	자월도 유래	자월도	[유래]
	달바위 유래	달바위	[유래]
	하너바위 유래	하너바위	[유래]
	죽바위 유래	죽바위	[유래]
	북바위와 북어네	북바위 (북어네)	[대계]
	벼락바위 유래	벼락바위	[유래]
	영흥도 유래	영흥도	[자랑]
	업벌 유래	외래벌 (업벌)	[유래]
	농어바위 유래	농어바위	[유래]
	공공바위 유래	공공바위	[유래]
	배연신굴 유래담	배연신굴	[사사]

2. 강화 · 웅진군의 대표적 해양 설화

1) 강화군의 해양설화

○ 선돌 추위 유래

왕이 피난을 하고자 배를 타고 강화도를 가게 되었는데, 뱃사공이 산으로 둘러싸인 목이 좁은 곳으로 배를 저어갔다. 왕은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 사공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여기고 사공을 죽였다. 사공은 죽으며 바가지가 흘러가는 데로만 따라가라고 하고 죽었는데, 그대로 하니 바다가 나와 살아나게 되었다. 이후 왕은 사공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고 제를 지내 주었는데, 그가 죽은 음력 10월 20일만 되면 날이 아주 춥고 풍량이 심하게 일었다. 이 때 추위를 선돌 추위라 한다.

○ 고향으로 간 선돌

선돌이 억울하게 죽은 후 선돌 추위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의 꿈에 선돌이 현몽하여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하며, 다음날 구렁이가 되어 사공의 배에 나타날 터이니 고향인 충청도 당진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다음날 보니 배에 구렁이 가 있어 사공이 그대로 했더니, 그 이후부터 선돌 추위가 없어졌다.

○ 선돌목과 벼슬 없는 양반¹

인조대왕이 난을 피해 인천바다로 나올 때 물목을 지나는데, 사공인 선돌이 물참이 되어야 이곳을 지나갈 수 있다 하며 가지 않고 있으니, 인조가 무슨 모의가 있냐 해서 그를 뚫대 끝에도 매달아 죽였다.

2) 용진군의 해양설화

○ 임경업 장군 전설(어살기원담) 1

영종도 운북 4리에 있는 산의 제당에는 임경업 장군을 모시고 있다. 장군은 중국에 갈 때 연평도에서 강주리 배를 타고 가면서 썰물일 때를 이용하여 찌리가지를 꺾어 박고 조기를 많이 잡았고, 또 민물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 임경업 장군 전설 2

연평도에 임경업 장군을 모시는 당이 있는데,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나갈 때 여기에서 먼저 고사를 지내고 간다. 병자호란 시 임경업 장군이 중국으로 갈 때 연평도를 지날 무렵 바닷물을 민물로 만든 일화 및 썰물 때 가시나무를 꽃아 고기를 잡았던 일화로부터 임장군은 고기를 잡게 해주는 용어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 망구할매 설화

옛날 덕적군도에 망구할매가 살았다. 하루는 망구할매가 치마폭에 흙을 가득 담고 선점산을 쌓다가 그만 무너지자 추억으로 쳐서 산산이 흩어져 섬이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각홀도와 굴업도 근방에 있는 선단여이다. 선단여는 망구할매의 오줌을 누는 붓돌로 사용했는데, 이 오줌 덕에 덕적군도의 바다가 마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망구할매 키가 어찌나 컸던지 인근의 바다가 할매의 무릎에 찼다. 침범침범 바다 위를 거닐며 다니던 어느 날 풍도골에 가니 수심이 깊어 놀기 좋았던 모양이다. 한참을 놀다 보니 입고 있던 중우 단속곳에 새우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백령도와 거타지

신라 진성여왕 때 일이다. 아손양패(阿淩良貝)는 당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적지인 진도에는 백제의 해적들이 집결하였다는 말을 듣고 만약을 대비해 할 잘 쓰는 군사 50여 명의 보호를 받으며 곡도(백령도)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풍랑으로 인해 10여 일간을 섬에서 묵게 되었다. 그래서 바람이 잘 줄 모르니, 답답한 양패는 점을 쳤는데, 점괘가 나오기를 섬에 있는 신지(神池)에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빌었다. 그 후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할 잘 쓰는 군사 하나만 이 섬에 남겨두고 가면 바람이 진정된다고 알려주었다. 잠에서 깬 그는 남을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 나무 조각 50개에 군사들의 이름을 써서 물에 던져 제비를 뽑게 되었다. 그랬더니 명궁사 거타지의 이름만이 물에 잠겨 뜨지 않았다. 이리하여 사신 양패는 거타지만을 섬에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는데, 기이하게도 바람이 잔잔해져 중국대륙으로 건너갔다. 이 섬에 홀로 남은 거타지는 근심에 쌓여 있으려니 홀연 노인이 못에서 나타나 거타지에게 말하기를 "나는 서해신인데, 사미승(沙彌僧)이 하늘에 내려와 다니경을 외면서 우리 자손들의 간장을 빼먹어서 다 죽고 말았다. 오직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이 남았다."고 하니, 용감한 거타지는 활은 나의 특기이니 염려 말라 일렀다.

다음날 해가 뜨니 사미승이 나타나 주문을 외우고 노인의 간을 취하려 할 때 거타지가 활을 쏘아 중을 맞추니 그 중은 늙은 여우로 변해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 때 노인이 나와 공이 주신 은혜 갚을 길이 없으니, 청컨대 내 딸을 아내로 삼아 달라 청했다. 그리고 노인은 딸을 꽃가지로 변신시켜 품속에 넣어주고 곧 두 용을 시켜 거타지를 모시고 사신의 배를 따라가게 하고, 그 배위를 호위하여 당나라 국경에 도달하게 하였다. 당나라 사람들이 보니, 두 용이 신라의 배를 호위해 오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천자에게 알리니, 당 황제는 신라 사신들은 반드시 비상한 사람들이라 하여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상을 내렸다고 한다. 그들은 신라에 귀국해서 거타지는 꽃가지를 꺼내 여자로 변신시켜 같이 잘 살았다고 한다.

○ 삼형제바위 유래

송림면 동부리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의 바위가 큰 것부터 차례로 작은 것까지 나란히 황해도 해주를 향해 서 있어 이를 삼형제바위라 불러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삼형제바위는 황해도 해주만을 바라보고 있어 이 섬의 있는 복을 모두 황해도 해주로 보내고 있어 이 섬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왔었다. 그런데 마침 이곳에 항만 공사를 하면서 이 삼형제 바위를 모두 부숴 버리게 되었다. 그 후 이 마을의 복을 해주로 보내던 삼형제 바위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따라서 이 섬의 복을 해주로 보내는 이가 없어지게 된 후부터는 이 마을이 점점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삼형제 바위의 뒷 모양은 모두 없어졌고, 아랫부분만 남아 있어 아쉽지만 이 섬이 점점 잘 살게 되는 것은 이 섬의 복을 해주로 보내던 삼형제 바위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두무진 유래

백령면 연화리에 있는 백령도의 맨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연지동의 서북쪽에 있으며, 백령면에서 제일 큰 포구가 있어 예부터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나갔던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예부터 사람의 털과 같은 해산물인 가시리, 말, 미역 등이 많이 나고 있어 털이 많이 자라는 곳이라 하여 두모진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두무진이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두무진의 북동쪽에는 인당수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 심창전에 나오는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들에 의해 산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는 물살이 센 물 목이 있으며 서북 해안선에는 깎아지른 절벽에 태곳적부터 깎이어 온 바위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백령도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관광명소라 하겠다.

○ 인당수 전설

백령면 북촌리 두무진 북동쪽에 있는 바다를 이르는 이름으로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물목으로 예로부터 물살이 세고 바다가 깊어 많은 배들이 이곳을 지나다 해난사고를 당하던

곳이라 전해지고 있다. 백령면 사람들은 이곳이 고소설 심청전에 나오는 선인들이 뱃길에 무사하기를 기원하기 위해 심청이를 제수로 바쳤던 곳이라 믿고 있어 이곳이 바다 보이는 진촌리의 뒤쪽에 있는 망산 정상에 심청각을 건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대청도 유래

조선조 명종 때 국모 윤씨가 신병으로 고생하면서 전국의 명의에게 처방을 받았으나 백약이 무효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윤씨의 병세에는 상기향이라는 명약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전국 팔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뽕나무에서 나는 상기향을 구해 올리도록 했다. 그때 이곳에서 상기향을 구해 올리니 그로 인하여 국모 윤씨의 병이 완쾌되었다고 한다. 그 후 조정에서는 이곳을 방치해 둘수만 없다고 하여 후히 상을 내리고 이곳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보니 이곳은 돌만 있는 암도가 아니라 숲이 무성한 큰 섬인 것을 알게 되어 대청도라 칭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 장사바위 유래

덕적면 소아리에 있는 이 바위는 소아도에서 약 500m쯤 떨어진 곳에 우뚝 솟아 있다. 그런데 그 생긴 모양이 장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마을에서는 한 여인이 바닷가에 굴을 파고 있는데 덕적도에서 제일가는 장사가 육지로 가기 위해 물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이 여인의 뱃속에 또 다른 장사가 하나 잉태되어 있었다. 물위를 걸어오던 그 장사는 그만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또 다른 장사를 보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선택로 굳어져 돌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물론 이 여인의 뱃속에 있던 장사로 태어날 아기도 그만 그 장사가 굳어져 돌이 되는 것에 놀라 장사로 태어나지 못하고 보통사람으로 태어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섬에서 태어날 장사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 애석함을 지닌 바위로 장사가 굳어진 바위라 하기도 하고 또 그 모양이 장사같이 생겼다 하여 장사바위라 하게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 선대암(선단여) 유래

덕적면 백아리에 있는 이 바위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덕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백아도에 노부부와 남매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노부부가 하루 사이에 모두 죽게 되었다. 그러자 인근 외딴 섬에 홀로 외로이 살던 마귀할멈이 여동생을 납치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십여 년이 흘러 장성한 오빠는 홀로 조각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 풍량을 만나 어떤 섬에 정박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여쁜 처녀를 발견한 총각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둘은 마귀할멈이 없는 틈을 타서 사랑의 밀회를 즐기게 되었다.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남매의 사랑을 개탄한 하늘은 선녀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를 설명해주게 하여 알려주었다. 그러나 남매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죽는 편이 좋겠다고 고집함으로 하늘은 이들에게 천둥과 번개를 때리게 하여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남매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던 마귀할멈을 모두 죽여 버리고 만다. 그 후 그곳에는 세 개의 바위가 우뚝 솟아올라 사람들은 이것을 오빠바위, 누이바위, 할아버지바위라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선녀의 말을 믿지 못하고 고집하다 벼락을 맞아 선녀들이 너무 안타까워 붉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 하여 선녀단이라 하던 것이 점차 선단여바위로 불리게 되어 한자로는 선대암이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 배연신굿 유래담

경기도 서해 도서 일대에는 임경업 장군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명나라로 가던 중 연평도를 지날 때 병사들이 굶주리고 지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자 가시나무를 그물처럼 엮어서 조기를 잡아 먹었다는 민담이 퍼져있다. 이것이 조기잡이의 시초로 서해의 조기잡이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뱃사람들은 그를 어업의 신으로 받들어 왔으며 연평도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제례를 올려온다. 배연신굿도 이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한다.

3. 인천 해양설화의 특징

1) 도서 형성담

인천은 152개의 섬이 있으며, 각 섬이 형성 유래담이 해양설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산, 섬, 골짜기, 바위 등의 형성과 소멸에 관련한 설화가 많다. 자연의 형성과 관련한 설화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망구할매 설화이다. 덕적군도에 사는 망구할매가 산을 쌓다가 무너지자 주먹으로 쳐서 각홀도와 선단여가 생겼다는 것이다. 망구할매는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지리산 마고할미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고할미라는 신과 궤를 같이하고 여신이라 할 수 있다.

2) 해양 개척담

인천지역에는 인간의 힘으로 바다를 육지로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운하 공사의 실패로 바닷물을 막았다는 <장자골 유래>, 전조창의 설치로 바다가 육지화 되어 주민들이 밭을 일구게 되었다는 <도촌과 노염발 이야기>, 지나가던 중을 회생시켜 바닷물을 막는 독을 쌓았다는 <선두포둑 유래>, 강화도 전두리에 살고 있는 황장사가 돌을 옮겨 바닷물을 막았다는 <전두리 유래>가 대표적이다. 이들 설화는 인간이 자연을 바꾸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문학산 <배바위 전설> 역시 바다가 육지로 바뀐 이야기를 담고 있다.

3) 이별의 애환

바다는 육지의 끝으로 이별과 단절의 공간이기도 하다. 인천 도서지역은 남녀의 이별담을 간직한 곳이 많다. 중국으로 떠나는 백제사신과 정이 든 기생이 사신이 떠나자 몸을 던졌다는 연수구의 <기생바위 전설>, 영종진에 주둔했던 호군(군인)을 사랑했던 첩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선녀암 사연>, 육지에서 유배온 관리의 재물을 훔쳐가다 죽은 <백령기생>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남매간의 비극적 사랑을 담은 백아도의 <선단여>전설도 있다. 자월도의 <벼락바위> 전설은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어부의 아내 이야기이다.

4) 해양 인물담: 임경업과 손돌

신앙과 관계된 설화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유형으로는 임경업 신앙과 관련된 조기잡이 유래담, 뱃사공 손돌의 죽음에 얽힌 손돌 추위의 유래담 등을 들 수 있다. 조기잡이 유래담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 지역에 널리 전해져오고 있는 이야기로, '임경업 장군이 배를 타고 중국을 가다 연평도에 들렀는데, 병사들이 배가 고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자 장군이 구찌나무(가시나무)를 엮어서 조기를 잡아 먹었다.'는 내용이다. 조기잡이와 관련된 설화의 내용은 임경업의 탁월한 지혜와 주술적 능력이 부가되면서 신화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조기잡이와 임경업 장군 유형 설화가 전승되는 지역은 과거 조기 어업에 참여하였거나 임경업을 신격으로 모시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임경업을 마을을 관장하는 주신, 또는 조기잡이를 관여하는 '종어신(어업신)'으로 모시고 있다.

손돌 이야기는 손돌 추위에 관한 유래담이자 김포군과 강화군 사이에 있는 손돌목이라는 여울의 지명유래담이다. '손돌이 강화도로 피신가는 공민왕을 모셨으나 공민왕의 오행으로 왕명에 의해 손돌은 참수되었다. 동료들은 죽은 손돌의 묘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좁은 물길을 손돌목이라 부르고, 이때 부는 추위를 손돌 추위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한 풍랑과 몰살, 그리고 흑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손돌목 지역에 대한 강화 주민들의 공포가 손돌이라는 풍신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손돌 이야기는 풍신에 대한 숭배를 통해 뱃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강화 지역민들의 신성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¹변영만의 '선돌의 노래'로 문학화 됨.

해양 설화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신화, 전설, 민담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설화 자원 가운데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설이다. 전설은 신화나 민담과는 다르게 특정 지역 단위로 전승된다.

인천의 해양축제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8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해양축제

인천도시인문학센터 김 유 경 전문연구원

○ 인천은 한반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또한 서해바다와 인접해 있으면서 도시와 농촌, 어촌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강화와 옹진이 인천광역시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수도권 도시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농촌과 도서 지역의 문화적 특성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인천은 인천 지역의 축제를 종합평가하고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와 같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인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민간축제를 포함하여 총 44개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한 지역축제 총괄표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25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개의 축제 가운데 개최장소나 프로그램이 해양과 관련되는 축제는 총 7개이다. 중구의 인천해양축제,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남구의 낙섬축제와 서해안 풍어제,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옹진군 영흥도 풍어제축제와 강화도 새우젓축제가 이에 해당된다.

○ 인천시 해양 관련 축제 일람표

단위	축제명	개최 기간	주최/주관 기관	유형별	주제	장소	해양 문화자원 활용 여부
중구	인천 해양축제	8월 중 (3일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사)인천 문화축제 발전협의회	지역 특성화	역사문화, 해양	장산 해수 욕장	
	월미 관광특구 문화축제	10월 중 (3일간)	중구 문화홍보과, 인천중구 문화원	지역 특성화	근대문화, 장소 특성화	월미 문화의거리	
남구	낙섬 축제	10월 중 (1일간)	용인동 주민자치 위원회	지역 특성화	역사문화, 주민화합	용인 운동장	
	서해안 풍어제	음력 2월 중	인천 서해 풍어 문화 보존회	전통 문화	제(祭) 의식	월미도, 연안부두, 소래포구	
남 동 구	소래포구 축제	10월 중 (4일간)	남동구 문화 홍보실, 소래포구 축제추진 위원회	지역 특성화	음식, 해양	남동구 소래 포구 일원	서해안 풍어제 공연, 주대소리, 갯기노래공연
옹진군	영흥도 풍어제	3월 중 (2일간)	선주협회	전통 문화	제(祭) 의식	영흥 수협 공판장	영흥도 풍어제 공연
강화도	강화도 새우젓 축제	10월 중 (4일간)	강인 북부수협 새우젓축제 추진위원회	지역 특산물	음식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강화외포리 갯창굿 공연

○ 인천해양축제

인천해양축제는 '바다와 함께, 인천과 함께'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해양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을 국제 해양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었다. 인천해양축제는 왕산해수욕장과 피서지를 연계한 축제로서 방문객들에게 축제장의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을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축제이다.

인천해양축제의 공연행사로는 경축음악회,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인천 해변가요제, 해변가족 멋자랑 한마당, 뮤직꽃축제 등이 있으며, 해양가족캠프, 맨손고기잡이, 해양축제 썸머 스페셜, 전국바다 낚시대회,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머드체험, 페이스·바디페인팅, 해변 캐리커처, 비치오픈스테이지 등을 통해 관광객의 축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인천항 갑문 개방, 인천시장배 전국요트 경기대회 등과 연계 행사도 진행 중에 있다.

인천의 '해양축제'는 아직 그 명칭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양축제는 자연환경(탁 트인 바다, 백사장, 갯벌 등)과 조화된 해양문화 콘텐츠가 필요한데 여전히 해변 축제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인천의 해양 스토리, 역사, 의례, 민요,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축제에 활용한다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은 한반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또한 서해바다와 인접해 있으면서 도시와 농촌, 어촌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강화와 옹진이 인천광역시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수도권 도시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농촌과 도서 지역의 문화적 특성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